

古典詩論과 그 繼承問題

—問題의 提起를 위한 一考察—

鄭 大 林*

一. 序

韓國古典詩論의 定立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古典詩論研究는 個別的인 연구를 비롯하여, 特定 時代 詩論의 全貌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¹⁾ 이러한 古典詩論研究의 또 하나의 다른 목표는 다름 아닌 現代詩論에 기여할 수 있는 傳統詩論으로서의 의의를 찾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의 古典詩論은 中國의 詩論을 受容·發展시킨 것이며, 現代詩論은 西歐詩論의 영향 아래 전개되었다고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古典詩論이나 現代詩論이 다 外來詩論의 영향 아래 전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受容의 이기보다 變容의 이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하겠다.²⁾ 그리하여 古典詩論이나 現代詩論을 막론하고 그 底流에 있는 主體의인 自覺과 獨自의인 詩學에 대한 摸索의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 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鄭漢模교수의 아래 인용과 같은 견해는, 詩論의 傳統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 人文大 助教(博士課程, 國文學專攻)

- 1) 個別的인 研究란 지금까지의 古典詩論研究의 방법으로 나타난 資料의 整理나 方法論의 摸索, 文獻學의 研究, 比較文學의 研究 등을 말하며 特定 時代의 詩論研究라 함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공동작업 등을 일컫는다.

全益大: 麗朝詩學研究(國文學研究 26號)

鄭堯一: 朝鮮前期詩學研究(國文學研究 36號)

崔 雄: 朝鮮中期詩學研究(國文學研究, 32號)

拙 稿: 朝鮮後期詩學研究(國文學研究, 35號)

- 2) 지금까지 古典詩論을 研究한 업적들에서 한결같이 주장되는 사실이다.

獨自의 詩觀과 詩의 기준의 확립과 詩方法과 詩精神의 主體의 定立은 실상 韓國現代詩論이 當面한 主要課題인 것이다.³⁾

現代詩論의 主要課題인 獨自의 詩觀과 詩의 기준의 확립이나, 詩方法과 詩精神의 主體의 定立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古典詩論과 現代詩論의 脈絡을 찾아 그 傳統을 이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 안다.

그러나 西歐詩의 영향 아래 새로운 詩와 詩論의 탐구가 시작된 이래, 우리의 古典詩論은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밖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래의 인용에서 잘 드러난다.

外國文學의 輸入이 우리의 急先務의 하나인 것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없다. 아무 地盤도 없는 우리로서 그들에게 배움 또한 없지 못할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는 現代에 살고 있는 世界人으로서만으로도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建設하는 國民文學이 世界文學의 一部를 形成하는 以上 外國文學을 옮겨 놓는 義務는 확실히 우리들에 賦與된 한 重大한 課題다.⁴⁾

〈아무 地盤도 없는 우리〉라는 말은 적어도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학은 돌아볼 여지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國民文學의 建設〉을 꿈꾸면서도 〈外國文學을 옮겨 놓는 義務〉에만 급급했다는 것은, 아무리 〈外國文學의 輸入〉이 〈急先務〉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文學的 現實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논리 전개의 모순성은 숨길 수 없다 하겠다. 國民文學이니 民族文學이니 하는 우리의 독자적인 文學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傳統文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古典詩論研究는 충분히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 朝鮮後期詩論과 1930년대를 전후한 韓國現代詩論의 樣相을 詩의 本質과 作詩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전통의 맥락을 잇고자 하는 의의도 거기에 있다 하겠다.

물론 古典詩論의 研究에는 中國詩論의 研究가, 그리고 現代詩論의 研究에는 西歐詩論의 研究가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그 분명한 樣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本稿가 지니는 한계로서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3) 鄭漢模 : 現代詩論, 民衆書館, 1973, p. 13.

4) 異河潤 : 庚午譯壇一瞥, 新生, 3卷 12號 1930. 12., p. 10.

우리의 古典詩論은 漢詩를 中心으로 한 詩論이다. 그러나 그 詩論이 우리의 國文詩歌를 評하는 데에도 적용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⁵⁾, 漢詩 中心의 詩論이라고 해서 도의시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학적 역량과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漢詩를 國文詩歌가 아니라고 해서 文學史에서 결코 제외해 버릴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문학적 입장에서 그들이 남겨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러한 저배계급이 모두 詩人이었던 사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뒹 속에 흘러온 詩情이 결코 메마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⁶⁾

鄭漢模교수의 이와 같은 견해는 詩的 傳統의 계승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漢詩나 國文詩歌를 막론하고 우리 民族의 詩情이 그 속에 담겨있음이 분명할진대, 우리의 詩的 傳統은 마땅히 漢詩를 포함한 것이 아니면 그 의의가 크게 떨어진다고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그리고 <뒹 속에 흘러온 詩>나 <詩情>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朝鮮後期詩論과 現代詩論과의 맥락을 찾고자 하는 本稿의 의의는 <뒹 속에 흘러온 詩>의 전통을 이루고자 하는 民族文學的 입장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古典詩論과 現代詩論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찾아 검토해 보고, 아울러 現代詩論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二. 詩의 本質의 問題

詩에 관한 논의에 있어, 詩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하겠다. 먼저 詩란 무엇인가 하는 詩의 本質에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詩의 本質에 대한 朝鮮後期の 一般的인 견해는 風敎·性情·理氣·妙悟의 네 가지 견해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⁷⁾

5) 金萬重, 洪萬宗을 비롯한 文人들이 우리 詩歌의 評에 古典詩論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6)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974, p. 19.

7) 拙稿: 前掲書, pp. 85~101 참조.

① 詩가 教化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본래 溫柔敦厚한 詩精神으로써 性情을 다스려서 風化를 이루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感化하여 세상의 도리를 平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⁸⁾

② 詩는 마음에 바라는 바를 말로 表現한 것인데, 참된 마음이 쌓인 다음에야 光輝가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事物에 感應하는 것은 비록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말로써 形容하여 각각 性情의 올바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함에 邪惡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詩經 三百篇이 詩의 根本이 되는 까닭이다.⁹⁾

③ 天地間에 一種의 淸冷·虛靈의 氣가 있어서 때때로 인간에게 모여 나타나는데 肺腸이나 面貌에서부터 言語와 文章에 나타나는 것까지 모두가 이 氣이다. 氣라고 하는 것은 束縛되는 風度나 氣象이 아니며, 一定한 구역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¹⁰⁾

④ 詩에는 神秘한 精神의 境地가 있는데, 이것은 無形中에 寓居하면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찾아보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¹¹⁾

朝鮮後期 文人들의 詩의 本質에 대한 견해는 위에서 인용한 예문들로 각각 대표할 수 있다. 이들 예문들을 중심으로 風教·性情·理氣·妙悟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教의 견해란 곧 詩의 効用性を 바탕으로 하는 社會風教에 그 근본을 두는 것으로, 詩를 정치나 교육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①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詩는 教化하기 위한 것으로, 溫柔敦厚한 詩精神을 詩의 標的, 詩의 妙諦로 삼아 性情을 다스려서 教化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사람의 마음을 感化하여 세상의 도리를 平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官僚文人들의 근본적인 생각이었으며, 이는 또한 社會改革意志를 反映하고자 했던 實學者들에게도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性情의 견해란, 詩는 인간의 情緒를 振作시키는 것으로 個人的 情緒의 表

8) 詩之爲教 本欲以溫柔敦厚者 理性情 而形風化 感人心 而禪世程(南九萬:藥泉集, 卷二十七, 琴湖遺稿序)

9) 詩者言志 誠信積中 然後光輝發外 故感於物者 雖有淺深之殊 而形於言者 各得性情之正 故曰思無邪 此三百篇所以爲詩之本也(金祖淳:楓舉集, 卷十五, 東省校餘集序)

10) 天地間 有一種淸冷虛靈之氣 往往鍾於人 則自肺腸面貌 至發爲言語文章 皆是氣也 是氣也 不爲風氣所縛 不爲區域所固(金鍾秀:夢栢集, 卷四, 題李深遠遺稿卷首)

11) 詩有神境 是物也 寓於無形之中 忽然而來 忽然而逝 遇之而若可見 即之而無所得(申光洙:石北集, 卷十五, 贈申鵬舉序)

현이 곧 詩라고 하는 견해인데, ②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된 마음인 詩에 그대로 나타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詩는 性情의 表現으로, 個人的 情緒를 나타냄으로써, 인간의 情緒를 순화하고, 인간의 心性을 陶冶하여 세상의 道理를 平靜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社會教化를 實現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면 風敎나 性情의 두 견해는 서로 相通하는 면을 갖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현실적 風敎를 指向한다는 不可分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調和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理氣의 견해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氣의 문제는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이기도 하다. 詩에 나타나는 理와 氣는 흔히 內容과 形式의 문제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理는 意趣로서 主가 되는 精神의 문제로, 氣는 格律로서 從이 되는 技巧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¹²⁾ 그러나 詩의 本質로서의 氣는 결국 詩人의 精神의 活力을 이르는 것인데, ③의 예문에서와 같이 이 氣는 어떠한 속박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의 氣象이며, 詩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고, 詩의 作法이나 技巧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氣를 함양하여 詩에 表現함으로써 詩의 昌盛한 경지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妙悟의 견해란 詩人의 直觀과 靈感을 詩의 本質로 이해하는 것으로, 直觀과 靈感을 통하여 詩人의 世界觀을 확립하고 自然의 神秘를 얻어 詩에 있어서의 造化의 神秘를 이루어 내는 것이 곧 妙悟의 世界라는 것이다. 이는 ④의 예문을 통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無形으로 존재하다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신의 신비로운 경지, 즉 詩에 있어서의 직관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포착해야 하며, 애써 얻으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때문에 詩人은 스스로 신비로운 정신의 경지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그 詩意識을 통하여 反映된 詩世界를 具體化하여 詩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견해는 비록 中國詩論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麗朝와 朝鮮을 거쳐 내려 오면서 우리 詩人들의 여과과정을 거쳤고, 그

12) 趣屬乎理, 格屬乎氣 理爲之主, 氣爲之使(任環: 玄湖瑣談)

리는 가운데 단순한 모방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獨自의인 詩觀으로 소
화하려고 한 노력은 어느 時代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西歐詩論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現代詩論 특히 1930년대를
전후한 詩論의 樣相 中에서 詩의 本質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
한 네 견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詩人은 한 개의 目的=價値의 創造로 向하여 活動하는 것이다. 그래서 意識的으로
로 意圖된 價値가 詩로써 나타나야 할 것이다.¹³⁾

詩는 하나의 目的을 위해 의식적으로 의도된 價値의 創造物로 파악된다.
詩 자체가 目的이 아니라, 의도된 價値의 창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風敎의 견해에서 詩가 道를 실어 전하는 도구로 이해되었던 것과 비교
가 될 수 있다. 詩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면에서는 서로 상통하지만, 溫
柔敦厚한 詩精神으로 社會敎化를 위한 道를 실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風敎의 견해라면 金起林의 견해는 의식적으로 의도된 가치(목적)를 나타내
기 위한 수단으로 詩를 파악하는 것이다.

思想 없는 詩 即 그들은 詩의 對象인 自然이나 人間生活이 思惟를 通하여 詩的
表現의 길을 밟는 것이 아니라, 感覺된 現象을 神經部를 通하여 그것을 그대로 末
梢部分에 積載해 두고 詩의 製作만을 爲해서 思惟한다.¹⁴⁾

당시 金起林·鄭芝溶으로 대표되던 技巧主義論을 비판하면서 詩의 內容을
강조한 林和의 견해다. 그는 人間의 思惟를 通하여 표현된 詩, 思想이 담긴
詩를 내세웠다. 效用論을 바탕으로 詩를 정치나 교육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자 했던 風敎의 견해나, 價値(目的)와 思想을 詩에 表現하여 그들의 目的에
이용하려고 한 金起林, 林和의 견해는 詩를 정치나 사상의 관계에서 이용하
려는 效用論的 입장에서 그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다음은 性情의 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文學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결국<形>이 아니요, 心인 까닭이다.¹⁵⁾

13) 金起林：詩論，白楊堂，1947，p. 107.

14) 林和：文學의 論理，學藝社，1940，p. 626.

15) 金煥泰：批評文學의 確立을 위하여，(新韓國文學全集 48. 評論選集 1, 語文閣)
p. 125.

순수문학을 표방하며 프로문학에 대항, 스스로 예술지상주의자임을 자처 하였던 金煥泰는 文學의 本質을 心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文學을 心의 표현 즉 性情을 본질로 하는 文章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는 보편적인 것으로, 春園 李光洙는 <情的 分子를 包含한 文章>¹⁶⁾이라 하였고, 白大鎮은 <文章에 情意를 附한 者>¹⁷⁾라고 하였다. 한편 金起林은 그의 「詩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詩는) 사람의 心的 態度的 어떤 調整에 奉仕할 뿐이다. 널리 認識의 部面과 情意的 部面으로 우리의 心的 活動을 便宜上 나누어 놓으면 詩는 情意的 部面に 屬하는 것이다.¹⁸⁾

詩는 어떻게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야 한다는 存在의 詩論을 전개하면서, 詩란 무엇이며, 왜 있는가 하는 등의 設問은 統一된 一義인 解決이 나올 리 없다고 주장한 그로서도, 결국 詩의 本質은 心的 活動의 一部面인 情意 곧 性情의 문제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詩의 본질을 個人的 情緒의 表現으로 보는 견해는 古典詩論이나 現代詩論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詩意識이라 하겠다.

다음은 理氣의 견해이다.

우리는 詩의 가장 본질적인 性質을 의미로부터 독립한 기교의 우수성에서나, 음악과의 결합에서가 아니라, 生命의 힘을 전달하는 迫力 속에서 열정적으로 體驗된 경험을 전달하는 言語의 완전성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中略) <生命의 의식>이 없는 詩에서 우리는 진정한 藝術의 감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¹⁹⁾

金煥泰는 이와 같이 詩의 본질을 <生命의 힘을 전달하는 迫力> 속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詩人의 精神的 活力인 氣를 그 본질로 파악했던 견해와 같은 類의 것이다. 生命의 힘을 전달하는 迫力이란 곧 詩人의 精神的 活力을 말하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生命의 의식>이 충만한 詩의 創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6) 李光洙: 文學의 價値(大韓興學報, 11號) p. 16.

17) 白大鎮: 文學에 對한 新研究(新世界 4卷 2號) p. 14.

18) 金起林: 前掲書, p. 29.

19) 金煥泰: 表現과 技術(前掲書) p. 111

朴龍喆 또한 <詩는 詩人이 늘어 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材料 삼은 꽃이나 나무로, 어느 순간의 詩人의 한 쪽이 혹은 온통 變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先詩的인 문제>로 詩人의 가슴 속에 <無名火>를 길러 詩의 創造에 대비하는 것이 <理想的인 코스>라고 하였는데,²⁰⁾ 이 때 詩人의 가슴 속에 이름없이 타오르는 불길 즉 <無名火>야말로 詩人의 精神的인 活力으로서의 氣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詩人의 정신적 활력인 氣를 詩의 본질로 파악하고자 하였던 古典詩論에서의 견해는 <生命의 힘을 전달하는 迫力> 또는 <無名火>로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논의되고 있다 하겠다.

끝으로 妙悟의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靈感이 우리에게 와서 詩를 孕胎시키고는 受胎를 告知하고 떠난다. 우리는 處女와 같이 이것을 敬虔히 받들어 길러야 한다.²¹⁾

朴龍喆은 詩의 本質을 靈感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잉태시킨 詩(실제 작품화된 詩 이전의 상태다.)를 경진한 마음으로 길러 <完全한 成熟>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새로운 創造物>, <새로운 團體>로서의 詩가 <誕生>한다고 하였다.

그는 <靈感이 나무 끝에 오는 바람결 같이 그의 마음 속에 불어>오면 그것이 스스로 자라 胎盤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이 胎盤을 떨어질 때까지 그에게 자양을 공급하고, 모양을 만들고, 살을 붙이는 것이 곧 그의 感情이요, 知性이요, 感覺이다.²²⁾

이와 같이 金煥泰는 「鄭芝溶論」에서 詩의 本質을 靈感이라고 말하고 있다. 靈感이 詩人에게 떠오르면, 詩人은 그의 感情과 知性と 感覺으로 자양을 공급하고, 모양을 만들고, 살을 붙여서 한편의 詩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朴龍喆과 金煥泰가 詩의 본질을 靈感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妙悟의 世界 즉 직관과 영감을 통하여 詩人의 世界觀을 확립하고 自然의 神秘를 얻어 詩에 있어서의 造化를 이루어 내는 것을 詩의 본질로 파악한 朝鮮後期文

20) 朴龍喆: 詩의 變容에 對하여(朴龍喆全集·評論集, 東光堂書店) pp. 9~10.

21) 朴龍喆: 朴龍喆全集, 二卷, pp. 8~9.

22) 金煥泰: 鄭芝溶論(前揭書) p. 136.

人들의 견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朴龍喆, 金煥泰 등이 詩의 本質의 問題에 있어 하나의 일관된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多樣性을 보여주고 있음은,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詩의 本質의 문제에 있어, 朝鮮後期の 文人들이 가졌던 견해와 1930년대를 전후한 現代詩論에 나타난 견해가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三. 作詩의 問題

詩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詩人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좋은 詩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作詩의 문제에 대한 견해들을 古典詩論과 現代詩論에서 각각 간추려 몇 가지 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詩를 짓기 위해 苦心하면 생각이 깊게 된다. 생각이 깊어지면 理論이 該博해지고, 이론이 해박해지면 言語가 새로워진다. 언어가 새롭게 되기도 중지하지 않고 노력하면 工巧하게 된다. 工巧하면서도 그치지 않으면 鬼神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고 造化를 옮겨 나타낼 수도 있다.²³⁾

한 편의 좋은 詩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좋은 詩를 쓰기 위해서는 苦心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론을 갖추고, 言語를 새롭게 하며, 또한 天性으로 부여받은 人才로써 詩를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詩의 理想的의 경지인 懼鬼神·移造化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단한 노력으로 學詩에 힘써야 詩의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作詩精神은 오늘날 詩人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詩라는 것은 詩人으로 말미암아 創造된 한낱 存在이다. (中略) 詩의 心境은 우리 日常生活의 水平情緒보다 더 高尚하거나 더 優雅하거나 더 纖細하거나 더 壯大하거나 더 激越하거나 어떠한 「더」를 要求한다.²⁴⁾

23) 夫吟苦則思必深 思深則理必該 理該則語必新 新而不已則工 工而不已則可以懼鬼神而移造化矣 (金祖淳: 楓亭集, 卷十六, 書金明遠明讀圖未定稿後)

24) 朴龍喆: 前掲書, pp. 142~3

우리는 詩를 살로 색이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 우리의 詩는 우리 살과 피의 땀
힘이다.²⁵⁾

朴龍喆은 詩를 詩人에 의해 창조된 <한낱 存在>로 파악하면서, 詩의 情緒
는 日常의 그것보다. 「더」한 경지의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日常의 情緒
보다 「더」한 情緒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정열을 다 기울이는, 그리하여 살과
피가 맺힌 마음의 소리를 詩로 나타내기 위한 詩人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좋은 詩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좋은 詩가 부단한 詩人의 노력
과 의지로 創造된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作詩精神이라고 하겠다.

나는 어릴 때 太華子(南有常의 號: 筆者 註)에게서 詩를 배웠다. 언젠가 소나무
아래서 쉬는데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혼연히 나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바람의 성질
을 알고 있는가 무릇 바람이라 하는 것은 太空에 떠돌다가 사물에 다가가게 되면 소
리를 내게 된다. 그러나 바람을 받는 사물의 성질이 굳세면 그 소리는 짐짓 그윽하
고 맑게 들린다. 詩를 쓰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좋아
해서 詩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그 때 그 소나무 아래를 떠나본 적이 없다.²⁶⁾

바람이 사물에 접촉하면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을 詩에 비하면, 詩人의 의
부적 또는 내면적 조건 즉 詩的 素材가 주는 감흥이라든지 詩的 靈感 등이
詩人을 자극하면, 그것이 詩로 승화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또한 사
물의 성질이 강하면 소리가 그윽하고 맑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 詩人의 詩意
識이 투철하면 할수록 좋은 詩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하
겠다. 詩的 素材를 찾는 詩人의 노력과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
등이 詩人의 詩意識에 시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면, 詩人은 비로소 하나의
詩를 창조하게 된다는 생각인 것이다.

詩라고 하는 것은 結局 詩人의 마음이 外部的 혹은 內部的 感性에 依하여 衝擊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의 非常性的의 表現이다²⁷⁾.

25) 上揭書, p. 218.

26) 余少學詩于太華子 子嘗憩松下有風至焉 子欣然顧余曰 若知夫風乎 夫風遊於太空
薄於物 而後爲聲 然彼受之者 其性剛焉 故其爲聲 乃穆然而清焉 爲詩亦猶是乎
余說是言也 每爲詩 其心未嘗不在松下也. (南有容: 雷淵集, 卷十二. 漢魏晉詩
選序)

27) 金起林: 前揭書, p. 111.

金起林은 外部的 혹은 內部的 感性이 詩人의 詩意識에 충격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非常性的의 表現이 詩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太華子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마음의 非常性的의 表現>이란 곧 그윽하고 맑은 소리로 비유된 좋은 詩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作詩精神을 비롯하여 詩人과 詩的 環境 그리고 詩와의 관계 등에 대한 생각 역시 古典詩論과 現代詩論에서 同質性을 지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음은 表現技巧의 문제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무릇 詩란 무엇인가? 性靈에서 비롯되어 物象을 빌어서 적당한 글귀를 맞춰 넣으면 文이 되고, 宮商의 변화를 이루면 律이 되는데, 法則에 얽매어서는 안되며 오직 적당하게 변화하여 정신에는 일정한 방향이 없고 변화에도 일정한 形體가 없어야 한다. 詩 또한 그와 같다. 때문에 現象을 表出함에 있어서 “눈 속의 파초”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고, 境界를 나타내는데 있어서도 “겨자속의 須彌山”과 같은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어찌 있는 그대로 만족하거나 구속되어 막힐 수 있단 말인가.²⁸⁾

이는 詩에 있어서의 表現의 自由性을 강조하는 것으로, 詩人의 想像力에 의한 意境의 확대나 절실한 표현으로 인상을 깊게 하고 두드러진 효과를 피하는 誇張法까지도 詩의 표현에 중요한 技法이 된다는 것이다.

詩에 있어서는 일견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언어가 독특한 조직 곧 비유나 유추의 관계를 통해 아주 적절하게 포괄 연결된다.²⁹⁾

이와 같이 現代詩論에 있어서도 詩語의 독특한 表現을 위해 비유나 유추 등의 표현기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볼 때, 詩語를 적절하게 구사하고, 詩의 意境을 상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詩人들의 노력은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나타나 있다 하겠다.

그러나 詩人의 보다 세련되고 보다 나은 表現에의 욕망은 자칫 말단의 기교에만 몰려버릴 위험성을 갖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기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기교보다는 內容을 중시해야 한다는 등의 논쟁이

28) 夫詩何爲者也 原於性靈 假於物象 青黃之錯 爲之 宮商之旋 爲律 不可爲典要 惟變所適 神無方而易無體 詩亦如之 故象有所轉 霧中芭蕉可也 境有所牽 芥裏須彌可也 是豈可以安排拘滯爲哉(金昌禽：三淵集，卷二十三，何山集序)

29) 金容復：韓國文學의 批評的 省察，民音社，1974，p. 311.

언제나 있어 왔다.

金柏谷 得臣이 평생 詩를 잘 하였는데 雕琢에 힘써 글자 하나를 천 번이라도 라져서 꼭 훌륭한 것이 되도록 하였다.³⁰⁾

오직 그 用意함이 더 넓어진 까닭으로 세상이 점점 巧細해져서 組織과 藻繪가 이르지 못함이 없게 되었다.³¹⁾

무릇 工巧함을 期約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工巧하게 되는 것, 이것이 天地의 淸通한 氣象의 巧妙한 까닭으로서 文章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³²⁾

훌륭한 詩의 效果를 위해 鍊琢에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 刻苦의 과정은 詩人들에게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쓸데없는 技巧에 흘러 아름다운 말을 만들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랜 훈련과 學詩의 과정을 거친 詩人의 詩의 역량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工巧로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凡務出奇詭驚動人者 必內存不足也>³³⁾에서와 같이 詩語의 지나친 鍊琢이 오히려 思想과 感情의 부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수식과 조탁에 탐닉하는 폐단이나 말장난에 치우쳐 詩의 內容을 부족되게 하는 병폐를 없애려는 그들의 생각은, 말단의 기교에만 치중하여 詩의 품위를 상실하거나 난잡한 詩語들만 골잘 나열하여 內容 없는 詩를 量産하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일부 詩人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한 篇의 詩 또는 그 한 句節에서 오직 精妙한 言語의 刺鑿을 計劃한다는 것 또 詩를 對할 적에 그 어느 句節의 巧緻를 極한 말재조만을 찾는다는 것은 詩를 짓거나 읽는 바른 態度일까.³⁴⁾

詩는 詩人의 내부의 필연적 요구와 열정적 體驗의 표현이요, 두뇌와 技術의 제각각기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다. (中略) 詩란 <知的 活動의 가장 고도로 조직된 形式>으로 봄으로써 필연적으로 歸結되는 詩의 非個性化를 배격치 않으면 안된다.³⁵⁾

30) 金柏谷得臣 平生工詩雕琢 肝腎一字千鍊 必欲工絕(任望：水村漫錄)

31) 唯其用意恢如 故世漸巧細 組織藻繪 無所不至(李漢：星湖德說，卷二十九，詩家藻繪)

32) 夫不期工而自工 斯淸通之所以爲妙 而在文章特可貴重(金昌禽：三淵集，卷二十三，西浦集序)

33) 李漢：星湖先生全集，卷五十五，盤岩集跋。

34) 金起林：前揭書，p. 88.

35) 金煥泰：表現과 技術(前揭書) p. 112.

지나치게 表現技巧에만 힘쓰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金起林의 경우와 오히려 詩의 內容에만 치중하는 것을 <詩의 非個性化>라고 하여 비판하고 있는 金煥泰의 경우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內容과 技巧 어느 면에도 지나치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林和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하여 <詩의 理想的 狀態>를 <內容과 技巧을 統一한 한 全體로서의 詩>라고 하면서 그러한 詩를 <가장 完成된 詩>라고 하였다.³⁶⁾ 內容과 技巧이 지나침 없이 調和된 詩를 가장 理想的이고 完成된 詩라고 한 그의 생각은 매우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보면 表現技巧의 문제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古典詩論과 現代詩論은 서로 유사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作詩精神, 詩人和 詩的 環境과 詩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表現技巧 등에 관한 견해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는데, 그들 견해 사이에는 서로 상통하는 同質性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作詩法上의 일반적인 基準을 제시해 주었던 申景濬의 견해를 살펴 보겠다. 申景濬은 그의 文集인 旅庵遺稿, 卷八, 雜著二의 「詩則」에서 그의 詩論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 詩作法總이란 항목에서, 作詩上의 기준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詩의 영역은 반드시 넓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上下 여러 句들이 여유가 있게 되고, 길어도 군색하지 않고, 짧아도 固陋하지 않다.

둘째, 詩語를 끊고 맺는 데는 반드시 간략해야 한다. 말을 다하게 되면 餘韻이 없고 말이 많으면 지리해진다. 비록 作文에 있어서도 끊어야 할 곳에서 간략하게 하지 않으면 볼 것이 없는데, 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詩文은 대개 군더더기가 많고 번다하거나 끝부분이 중첩되어 여운이 없는 폐단이 있다.

셋째, 표현에는 法度가 있다.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거나 繁大한 곳을 간단히 한다든지, 亂의 곳을 整齊하게 한다든지, 뜻이 奔忙한 곳을 한가한 뜻이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러서 法度가 있다고 한다.

네째, 詩語를 다듬는 데 있어서는 神奇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妙

36) 林和：前掲書，pp. 665~6.

가 있으면서 힘들여 한 것 같은 모양은 없어야 하고, 복치면서 춤추는 즐거움은 있으면서 시끄러운 소리는 없어야 하고, 積疊하는 密度가 있으면서 남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혐의는 없어야 하며, 남을 맞아 온당하게 접대하면서 몰아서 쫓아버리는 뜻은 없어야 하는 등의 것을 일러 神奇한 재능이라 하는 것이다.

다섯째, 詩語의 意境이 속되지 않아야 한다. 語意가 한번 속되게 되면 工巧하게 하고자 해도 卑陋해지고, 奇妙하게 하고자 해도 비웃음을 얻을 뿐이다. 詩人들은 俗됨을 가장 禁忌로 하며, 가장 고치기 어려운 詩의 病으로 생각한다.

여섯째, 구성에는 흔적이 없어야 한다. 上下와 四方이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타당하여 조그마한 흠도 없어야 한다. 만약 억지로 만든 것 같은 흠을 내지 않고서도 詩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연후에야 詩다운 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이와 같이, 그는 詩에는 餘裕와 餘韻이 있어야 하고, 표현의 法度와 표현 기교의 신기한 재능이 갖추어져야 하며, 詩語의 意境이 속되지 않고 구성에 흔적이 없어야만 좋은 詩가 될 수 있다는 作詩上의 기준을 제시해 놓았던 것이다. 이는 內容과 技巧가 調和를 이룬 <가장 完成된 詩>를 창조해내기 위한 作詩上의 기준이라 하겠으며, 시대를 뛰어 넘어 오늘날의 詩人들에게도 매우 示唆的이라 할 것이다.

四. 結

이상에서 古典詩論의 現代詩論에서의 繼承問題를 검토하기 위해, 古典詩

37) 一曰 地界必闊 地界必先闊占 然後上下諸句 恢恢然 有餘裕 長而不窒 知而不孤 二曰 斷結必簡 夫言之盡則無餘味 言之多則爲支離 雖行文其斷語處不能簡 則不足觀 況於詩乎 東人之詩文 大抵 多枝蔓多繁之患 尾重不挽之弊 三曰 鋪敘有法 如細瑣處亦成一甚詳 繁大處或亦輕輕盡 攔亂處有整齊 意忙處有暇閒意之類 是謂有法 四曰 轉摺有神 有變化之妙 而無力爲之態 有鼓舞之樂 而無喧聒之聲 有積疊之密 而無迫仄之嫌 有逢迎之穩 而無驅逐之意 是謂有神 五曰 語意無俗 語意一涉於俗 則欲巧而其巧可陋 欲奇而其奇可晒 詩家之所忌莫大於俗 詩病之難療 亦莫逾於俗 六曰 構結無痕 上下四方磊落停當 無少壘嶮 若不施斧斤刀錐而成者 然後 可以謂之詩矣

論과 現代詩論의 諸樣相들 중에서 詩의 本質의 문제와 作詩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樣相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하여 詩의 本質의 문제에 있어, 朝鮮後期の 文인들이 피력했던 견해와 1930년대를 전후한 現代詩論에 나타난 견해가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作詩의 문제에 있어서, 作詩精神이나, 詩人과 詩의 환경과 詩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表現技巧등에 관한 견해들이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古典詩論은 中國의 詩論을, 現代詩論은 西歐의 詩論을 각각 수용하여 전개되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詩의 傳統 속에서 이루어진 外來詩論을 바탕으로 전개된 우리의 古典詩論과 現代詩論이 詩의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우리 詩論의 傳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 詩論의 部分的인 樣相들의 공통점을 찾아 보았다는 것으로 해서, 本稿에서 의도했던 古典詩論의 繼承問題가 전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古典詩論의 繼承問題는, 中國詩論과 西歐詩論의 비교연구는 물론, 우리 詩論에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리의 古典詩論과 現代詩論의 보다 폭 넓은 비교연구 등이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분명한 해답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점이 바로 本稿가 갖는 한계로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때문에 本稿는 古典詩論의 계승을 위한 부분적인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起林：詩論，白楊堂，1947.

金容稷：韓國文學의 批評的 省察，民音社，1974.

韓國現代詩研究，一志社，1973.

金允植：韓國近代文學의 理解，一志社，1973.

- 金祖淳：楓泉集
金鍾秀：夢梧集
金昌翁：三淵集
南九萬：藥泉集
南有容：雷淵集
朴龍喆：朴龍喆全集，詩文學社，1939.
申景濬：旅庵遺稿
申光洙：石北集
李 演：星湖德說・星湖先生全集
任 環：玄湖瑣談
任 望：水村漫錄
林 和：文學의 論理，學藝社，1940.
鄭漢模：現代詩論，民衆書館，1973.
韓國現代詩文學史，一志社，1974.